

조선/기계 김 현

02. 6098-6699 / hyun.kim@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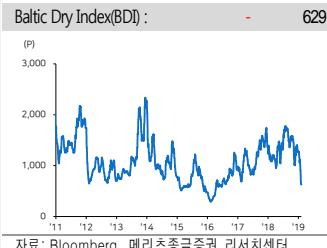


국내 주요 조선/기계 업체 Valuation

업체명	시가총액 (십억원)	외국인지분율 (%)	증가 (원)	1D	1M	3M	YTD	PER(x)	PBR(x)	ROE (%)	
				(%)	(%)	(%)	(%)	18E	19E	18E	19E
현대중공업	9,059.0	16.0	128,000	0.0	-7.9	1.6	-0.4	892	42.8	0.6	0.7
현대중공업지주	5,651.5	21.4	347,000	-0.6	-4.1	-8.7	0.3	4.7	3.9	0.6	0.5
현대엘렉트릭	637.2	5.7	31,300	0.0	37.0	55.0	41.0	3.0	2.6	0.3	0.2
현대건설기계	1,144.6	7.3	58,100	3.9	23.5	52.8	36.1	3.7	2.7	0.4	0.4
삼성중공업	5,411.7	19.0	8,590	-3.2	11.3	26.3	15.9	542	26.9	0.5	0.5
대우조선해양	3,709.3	10.3	34,600	2.4	5.5	13.8	1.3	12.1	17.1	1.0	1.0
현대미포조선	2,408.5	11.8	60,300	1.7	-2.1	29.1	0.5	13.0	9.4	0.5	0.4
한진중공업	131.0	4.4	1,235	0.0	-17.4	-31.4	-25.4	24.8	6.2	0.2	0.2
현대엘리베이터	3,340.5	20.0	123,000	3.8	11.8	49.5	15.0	21.7	21.1	3.0	2.7
두산밥캣	3,398.4	27.5	33,900	0.7	6.6	-4.4	7.6	12.4	11.7	1.0	0.9
현대로템	2,499.0	3.1	29,400	3.5	4.1	30.7	5.6	37.9	25.8	1.7	1.6
하이록코리아	264.8	47.7	19,450	1.0	13.1	-6.9	18.2	8.8	8.1	0.8	0.7
성광밴드	330.3	15.6	11,550	1.3	1.8	-0.9	1.3	1,021.0	41.4	0.7	0.7
태평	323.3	11.9	12,200	0.8	4.7	3.4	4.3	72.9	35.6	0.8	0.7
두산중공업	1,358.9	13.5	11,600	4.0	18.4	4.5	19.2	-41.3	10.9	0.4	0.4
두산인프라코어	1,844.3	21.6	8,860	2.2	14.6	12.0	16.7	6.1	5.7	1.0	0.8
HSD에프진	175.9	5.4	5,340	1.7	0.2	22.5	1.1	-14.0	-12.8	0.7	0.8
한국항공우주산업	3,323.9	14.3	34,100	1.3	3.8	8.6	6.9	49.3	24.6	3.0	2.7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639.3	14.7	31,500	2.4	-8.0	2.6	-3.1	117.9	22.8	0.7	0.7
LIG넥스원	767.8	8.5	34,900	1.0	-11.9	7.4	-5.5	70.9	20.8	1.5	1.5
태웅	222.1	4.9	11,100	0.0	13.6	-0.4	5.7	N/A	N/A	N/A	N/A
동성화이텍	219.9	5.1	8,150	0.7	8.2	-0.1	5.6	-16.2	31.3	3.2	3.0
한국기본	337.2	15.2	7,670	2.5	13.0	152	8.9	119.4	24.0	1.1	1.1

주: 커버리지 업체 PER/PBR/ROE는 메리츠증권증권 추정치, 그 외 업체는 Bloomberg 컨센서스 수치 /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표 및 차트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Seadrill in Angola drilling JV

국내 언론에 따르면 앙골라 국영선사 Sonangol은 드릴십을 1월 말에 1척, 3월 말에 1척을 대우조선해양에서 인도받기로 했으나, 아직 인도되지 않았다고 알려짐. 이번 달 말까지 1척을 인도받지 않으면 나머지 1척 인도도 불확실한 상황임. 이번 인도계약에는 각각 1년간 유예기간이 포함되어있다고 알려짐.

Upstream은 Sonangol이 시추업체 Seadrill과 50:50 형식으로 'Sonadrill'이란 JV를 설립함. Sonadrill은 심해 시추시장 공략을 목표로 서아프리카에서 드릴십 4척을 운영할 계획임. Seadrill은 자체 선대에서 드릴십 2척을 JV에 제공할 계획이며, Sonangol은 올해 상반기에 대우조선해양에서 인도예정인 드릴십 2척을 인도받아 JV에서 운영할 계획임. (Upstream)

Christos Economou reveals his plans in bumper 2018 LNG newbuilding haul

TMS Cardiff Gas 설립자에 따르면 TMS Cardiff는 2017년 12월부터 한해동안 LNG선 11척을 발주함. 그 중 9척은 5~7년 용선계약을 체결했다고 알려짐. LNG선은 오일메이저 Total, Shell과 Cheniere Energy 간에서 사용될 계획이며, 미국 LNG FID(최종투자결정) 증가에 수혜를 받았다고 알려짐. (TradeWinds)

현대重, 대우조선 품으면 법정다툼 벌였던 기술도 같이 쓴다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면 양사는 LNG선 부분재액화기술을 함께 사용할 수 있을 전망임. 대우조선은 2014년 1월 부분재액화기술을 특허로 등록, 이에 대해 현대는 2014년 12월에 무효심판을 제기하며 소송이 시작됨. 동시에 병합 후 현대글로벌서비스는 친환경 선박 개조 등에서 수혜를 예상됨. (연합뉴스)

Exmar's VLGC pair hang in the balance at Hanjin Subic yard

한진중공업 수박조선소 유통성 문제로 벌기위 선사 Exmar가 발주한 VLGC 건조가 불확실한 상황으로 알려짐. 관련 기자재 업체에 따르면 대안 조선사를 찾는 과정에서 발주가 중단됨. 현재 한국과 중국 조선업체가 신조선 협상을 진행 중이며, 현대중공업과 중국 Jiangnan 조선소가 거론됨. (TradeWinds)

New owner moves into frame for Delos Shipping VLEC slots

Delos Shipping이 2018년에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에 각각 3척씩 발주한 VLEC 계약이 의명의 선주로 넘어갔고, Dorian LPG일 가능성 있다고 알려짐. 삼성중공업은 1월 31일 특수선 3척 계약해지와 함께 새로운 수요처가 나타나 LIOI를 체결했다고 공시함. 해당 VLEC은 척당 1.23억달러임. (TradeWinds)

日선조, 조선비2 출현에 초기장

니혼게이자이, 일본해사신문 등 보도에 따르면 일본 조선업계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로 한국에 세계 최대 조선소가 탄생할 경우 규모의 경제로 일본이 타격을 입을 거로 분석함. 가격경쟁력이 강한 회사의 탄생이 위협이며, 특히 부가가치가 높은 LNG선 부문에서 타격을 예상함. (선박뉴스)

삼성중공업, 대우조선 인수 '고심'…제안서 검토 착수

삼성중공업은 산업은행의 인수제안서를 접수한 이후 경영진이 회의를 개최하는 등 검토에 들어갔다고 알려짐. 회신기한은 2월 28일까지로, 산업은행은 3월 4일까지 제안서 평가, 8일 본계약 체결 예정임. 그러나 삼성은 검토할 시간이 촉박하고, 그룹 차원에서 의지가 강하지 않다는 점에서 불참할 전망임. (연합뉴스)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시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9년 2월 8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율은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시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9년 2월 8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김현, 박진한)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시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원칙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